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과열 우려 증가

□ 2007년 1월 기준 연중 물가상승률 18.4% 기록

- 베네수엘라의 금년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를 기록하여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1월 기준 지난 12개월간의 물가상승률은 18.4%로, 이는 2006년 1월에 비해 5%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임.
- 부문별 1월중 물가수준은 음식료품이 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밖에도 의료비(2.8%), 여가비용(2.3%), 주류 및 담배류(2%) 등의 가격이 2%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금년 1월의 높은 물가상승률 추세가 2007년 내내 지속될 경우, 2007년 물가상승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정부 공식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10~12%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임. 2006년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에 달하여 이미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저소득, 빈곤층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임.

□ 이러한 인플레이션 과열의 배경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지출 급증, 가격통제로 인한 공급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차베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수입 증대로 풍부해진 재정수입을 빈민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생필품 가격보조 등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사용함. 이에 따라 재정지출은 2006년에만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비해서는 두 배로 증가하였음. 이로 인한 유동성 증대가 인플레이

선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지난 1월 8일, 차베스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통신사인 CANTV와 전력회사인 EDC의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비공식 환율이 1월에만 20%가 상승하였음. 베네수엘라의 공식환율은 달러당 2,147볼리바르이나, 현재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4,400볼리바르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수입액의 약 1/4이 비공식 환율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년간 400개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및 식료품 가격보조를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공급자들이 시장내 공급을 제한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가격규제를 무시하고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규제가격과 실제 가격의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격규제 위반자를 단속하는 한편, 필수식료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고, 국내 유동성을 축소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격규제를 무시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최근에는 설탕 등을 높은 가격에 파는 창고를 급습하고, 규제가격 이상으로 육류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48시간 동안 폐쇄하는 등 가격규제 이행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육류 등의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부족한 국내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필수 식료품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간 정부의 공개시작조작이 그다지 효과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최근에는 국영석유사인 PDVSA가 50억 달러의 채권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약 35억 달러에 해당하는 볼리바르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한 소비자 예금 금리 상승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진작시키는 방

안도 추진 중임.

□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인플레이션 과열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정부지출의 확대이나, 차베스 정부가 내세운 공약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행 및 차베스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정부지출 확대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격통제 해제 및 정부지출의 대대적인 축소, 환율통제 완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그러나 인플레이션 위기가 보다 더 심각해지거나 유가의 급락 등 급격한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베스 정부의 경제정책에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의 과열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8.9	-7.8	18.3	10.3	10.4	5.0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22.4	31.1	21.7	16.0	13.7	18.0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31.2	27.1	19.2	14.4	17.0	16.3

자료: EIU

문의 : 전문연구원 양행민 (☎3779-6676)
E-mail : haengmin@koreaexim.go.kr